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裵東守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5−9551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2−5895
☎ 967−8133 사무실

分所長 行政示指事項 誠實한이행促求

先事業, 后行政, 自給自律을 根本으로 하는 우리의 組織體制를 감안할때 不得已한 일이라고 하지만 最近 산하 分事務所의 行政業務는 한심한 지경이라할 정도로 開店休業상태이다.

觀望하는 안일자세 버리고
行政面으로도 적극적인 參與當付

設立된지 어언 19年이란 經綸을 쌓아왔고 그동안 많은 변천을 갖어온 것은 事實이지만 內實面으로 볼때 아직도 未洽된 點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그中 크게 지적한다면 行政上 취약점과 전반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點이다。

85년전만 해도 70餘個所의 分所와 8、000여名이란 가식된 會員數를 과시하면서 不實의 위험성을 지닌체 그래도 國內 唯一의 生藥分野 組織이란 후한 대접을 받아 가면서 가냘픈 行政力의 뒷받침속에서 오늘의 상황까지 이끌어온 協會는… 이제는 180여個所의 分事務所 組織과 比較的 정예라고 할수 있는 2、800여名의 정규會員을 정비확보하고 그렇게도 所望하던 任員團의 再編成을 이루게된 이時點에서 나는 이事項에 해당이 없다는 無觀心한 자세를 버리고 모든 分事務所長은 積極的인 行政參與에 솔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事業이 잘되어야 자금전도 좋고 行政업무도 잘될것이라고 보지만 事業과 돈은 그렇게 計劃한대로 척척 成事되기는 어렵다。이럴때일수록 착실한 行政뒷받침을 해두는 것이 組織유지의 上策이라 할수있다

極少의 人力과 資金운영으로서도 外部的인 協調와支援要請을 수없이 받아오고 있지만 그때마다 이를 別손색없이 처리하고 있는까닭에 對外的인 名目을 유지하고 있는 協會라해도 過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왕왕 地方에서 들려오는 消聞에 依하면 個別的이고 直接的인 利權이 없다해서 무엇을 해 주었는가?하는 不滿표시와 함께 本部를매도하는 사람들도 흔히 있다고 한다。勿論 의사표현의 自由겠지만 反論한다면 대개는 自己의무는 恒常뒷전에 미루고 남만을 탓하는 것을 좋아하는 利己的인 사람들、직접보지도 않고 現況도 모르는 사람들이 不滿은 더욱 많다고 하는 것이 通例的으로 나쁜버릇의 所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들 소문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고 소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宋會長이 부임한 以來各支部長 또는 分事務所長들에게 指示 또는 당부한書面示達이 5回에 걸쳐 있었는데 최근 이를 統計的으로 집계처리코저 조사를 해본 결과 도저히 %조차 파악할수 없는 보고현황이며、분사무소 규정상에 필수적인 去年度의 生産現況、會員確保現況등 수없이 強調해온 일들도 도무지 馬耳東風格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分事務所行政처리라는 것을 재실감하고 통탄을 禁할수 없다。

今年들어 년초에 꼭 제출되어야 할 사항은 ①87生藥材品目別 生産現況、②87年末現在의 自體會員확보현황등 보고는 必須的이되어 하며 ③생약 1-22(4・11일) 임원선출에 대한 의견취합‥전통상으로는 몇몇 있었지만 서면상으로는 거의 없는 상태 ④생약 7-25(5・9일) 87생약건조장 시설수요자파악(지부장)‥서면상으로는 전부상태 ⑤생약 7-26(5・9일) 판촉희망 및 소요품목수량 파악‥몇몇 보고로 거의 집계할수 없는 상태 ⑥생약 4-28(5・19일)은행잎주집가용량 파악(지부장)‥구두보고 1~2건외 거의전무상태 ⑦생약 2-34(6・2일) 체납회비 정리요망(해당자)‥해당자중 10분의 1정도 보고 또는 정리。

위사항을 검트해 보면 입안자로서는 할말을 잃고 만다。이와같은 행정취약을 보완할 길은 그래도 협회명의를 걸고 조직속에서 늘 활동하고저 하는 分所長들의 심기일전한 적극적인 행정참여 자세를 기대할수밖에 없다。해당사항이 없고 있고 간에 일단 公文이나 電言通信文을 받으면 回信할줄 아는 마음갖임을 갖고 報告書를 作成해 보도록 힘써야 될줄 안다。

格式에 맞고 안맞고는 別문제로 하고 本部에서는 報告書를 내주는 所長들에게는 매우 고마운 마음으로 비망록에 통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혜양하시고 앞으로는 더욱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行政業務를 처리할수 있게 協調해 주시기를 간곡한 당부를 드린다。(편집부제공)

생약보 게재용 廣告접수

協會는 機關紙인 生藥報에 대한 內實에 充實을期하고 편집調和를 한층 높이기 위하여 各級分事務所및 會員들이 要請하는 廣告를 게재하고 주변여망에 따라 앞으로 3종 우편으로 取級할수 있도록 部數를5천부~6천부 이상으로 증가시킬 計劃을 추진하고있읍니다。

따라서 各支部長및 郡・區 事務所長 또는 모든산하 會員께서는 廣告홍보가 必要時 本紙를 많이 活用하여 주실것을 要望하며 주변 企業이나 전재商會에도 많이 권유하여 機關紙 發展에 기여할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廣告원고는 2단내에게재할수 있어야 하며 기본內容만을 주셔도 무방함。

〈편집부〉

農林水産部 食糧節約·食生活개선 캠페인

국내부존자원의 활용

◉쌀

①생산량이 다른 곡류보다 많다。

②오랜기간 비축이 가능하다。

③밥짓기가 용이하다。

우리 실정에 맞는 식사문화정착

▲쌀의 장점

①합리적인 영양섭취를가능하게 한다。

・주식‥쌀밥

・부식‥김치、나물、생채등의 채소류、수조류、생선、조개、알등의 어패류、콩과 콩가공품인 두부와간장。

쌀밥은 어떠한 부식과도 잘 어울리며 반찬의 종류와 조리법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 서구의어떠한 일상식보다 합리적인 영양섭취가 가능하다。

②성인병의 위협성이 적다。

빵 중심의 식생활 습관에 비해 식물성 섬유를많이 섭취하게 되어 비만이나 당뇨병、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의 방병률이 낮고 변비를 방지할수 있다。

③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다。

일정한 넓이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양으로 쌀이 100명을 먹일수 있다면 밀은 75명、콩은 50명、육류는 단 9명을 먹일수 있을 뿐이다。

▲쌀가공식품의 생산현황과 전망

위와 같은 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좀더 편리하고 간편한 식사형태를 좇다보니 쌀 소비량은 점점줄고 있는 추세이다。이에 소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아 적은 양이긴 하나 밥의 형태를 벗어나 주식대용식품 기호식품으로서의쌀가공식품이 개발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①전통적인 쌀가공식품인 떡류、죽류、미과류、미식가루・식혜 등의 음료류외에 최근 개발된 쌀가공식품을 보면 쌀빵、쌀국수、쌀냉면 즉석건조쌀밥、즉석고기덮밥、쌀로랑、쌀로별등의 미과、현미유등이 있다。

②쌀가공식품은 전체 쌀소비량의 5%이내로서 아직은 전통적인 식품에 치우치고 있지만 쌀의 식감을 응용한 가공식품이 더욱 개발된다면 쌀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문화는 한층 빛나게 될 것이다。

알 림

'88 第2次 理事會 召集 公告

근거 : 定款第 11・12條에 의거 다음과 같이 88年度 第2次 理事會를 召集하오니 필히 參席하시기 바람.

＝다 음＝

◎日時 : 1988年 6月 28日(火) 13時
◎場所 : 集合장소—協會本部
회의장소—우이동 유원지
◎議案 : 協會현안 및 現況報告

1988년 6월 20일

會長 宋 景 太

公示事項

⊙協會 第19次 定期總會(3月31日) 및 定款第14・15조에 의거 新規理事會를 構成하고 다음과 같이 公示함。

=理事會 構成名單=

會長	宋景太	(新 서울)
副會長	林連學	(新 〃)
〃	朴在文	(新 경북)
理事	裵命哲	(留 서울)
〃	朴萬鍾	(留 〃)
〃	金東均	(留 제주)
〃	李和翼	(留 전북)
〃	李玉鎔	(留 서울)
〃	李鍾喆	(留 충북)
〃	文大珪	(留 충남)
〃	金正滿	(留 경남)
〃	朴吉夫	(留 부산)
〃	金龍漢	(留 서울)
〃	黃引九	(留 강원)
〃	李雄滉	(新 경기)
〃	全萬澤	(新 〃)
〃	閔宗權	(新 전남)
〃	申英達	(新 경북)
〃	金昌漢	(新 경남)
〃	徐鍾浩	(新 대구)

〈以上 20名〉

監事	朴永任	(留 강원)
〃	柳復珪	(留 경북)

1988年 6月 日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長